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 양상 연구

조 수 현
(경희대학교)

1. 서론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학습할 때 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관계사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의 차이도 있지만 한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관계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관계절의 구조에 따라 선행사의 격을 결정해야할 뿐더러 선행사에 따른 동사의 일치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와 같은 관계사는 없지만 관형형 어미¹⁾를 수반한 관계절이 영어의 선행사에 해당되는 머리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한국어에서의 관계절은 그 머리 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절을 말한다. (1a)와 (1b)에서는 명사 '책'이 중복되고 있다. (1a)와 (1b)의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을 만들 때 공통되는 '책'을 머리명사로 하고 공통되는 머리명사 '책'은 수식하는 절 (1a)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난다. '샀다'는 '책'을 꾸미기 위해서 관형형 어미가 필요하고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ㄴ/은'을 붙여서 관계절을 형성하게 된다.

1) 서정수(2006)에서는 '관계화소'라고 하였으며 이는 종래의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 (1) a. 내가 어제 책을 샀다.
- b. (그) 책을 잃어버렸다.
- c. 내가 어제 산 책을 잃어버렸다.

영어에서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의 관계절은 머리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왼쪽에 위치한다. 또한 영어에서는 관계절이 왼쪽 분지문, 가운데 내포문, 오른쪽 분지문에 고루 나타나는데 반해 한국어에서의 관계절은 왼쪽 분지문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의 주어 생략과 목적어나 보어 등이 동사 앞에 오는 한국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관계절을 살펴보면, (2a)와 (2b)와 같이 관계절이 머리 명사 왼쪽에 위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a)에서는 ‘種水果的’가 머리명사인 ‘農人’을 수식하고 있으며 머리명사 ‘農人’은 관계절에서의 타동사 ‘種’의 주체로 주격에 해당된다. (2b)에서는 ‘他們種的’이 머리 명사 ‘水果’의 왼쪽에 위치하여 머리명사 ‘水果’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水果’는 관계절 안에서 타동사 ‘種’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a)와 (2b)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어의 관계절이 머리명사 왼쪽에 위치하며 관계절과 머리명사 사이에 연결어미 ‘的’이 사용된다.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먼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이며, 중국어에서는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으로 관계절에서의 문장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가 시제와 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국어에서는 시제와 관계없이 ‘的’이 사용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관형형 어미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2) a. 種水果的 農人
- b. 他們種的水果

한국어의 관계절 사용 양상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때 이귀옥 외(2005)나 Willam 외(2006)와 Patricia(2002)의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중국인 학습자들도 한국어 학습 초기에 주격 관계절을

목적격 관계절보다 이해를 쉽게 하고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문장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 양상과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실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관계절의 특징인 관계절의 왼쪽 분지문 첨가 위치, 관계절 기저에 나타나는 격 표지와 머리명사와 함께 관계절의 문장 구성 성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관형형 어미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관형형 어미로 인한 오류율을 살펴 보겠다²⁾. 주어 생략이 가능하며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한국어와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을 갖는 중국어의 특징에 따른 주격과 목적격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의 관계절에 관한 연구로는 심리언어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한국어 분야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³⁾. 심리언어학 분야에서의 연구

-
- 2) 주격과 목적격 조사의 대치 사용 등의 조사 사용의 오류는 관계절 구성에 대한 오류로 보기 보다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오류로 보이나 관형형 어미 사용은 머리명사 앞에서 머리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사용되는 관형형 어미는 관계절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관계절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사용 양상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영어에서는 복문을 구성하기 위해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소 대신에 머리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관계절에 관형형 어미를 붙여야 한다. 이러한 관형형 어미는 시제와 상에 따라 변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관형형 어미를 적절히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즉 관계절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심리언어학 분야에서는 아동이나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의 습득 양상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한국어 분야에서는 관계절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관계절 구성에 필요한 관형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밖에 대조분석학적 측면에서 스페인어와 중국어 등의 관계절 구조와 비교하여

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 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계절에 대한 이해와 습득 양상을 실험하였으며 한국어의 관계절 이해에 있어서 관계절 첨가위치, 격표지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Patricia(2002)⁴⁾는 담화를 기초로 하는 기능적 접근 방식에 따라 주격, 목적격 조사의 습득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아동은 무표의 명사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주격 조사를 발화하고 주격 조사가 어느 정도 습득된 후에 목적격 조사가 습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에 있어서도 목적격보다는 주격의 습득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주격의 사용이 더 많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조수근(2003)은 낮은 연령의 아동이 내포 머리어 관계절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⁶⁾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서 이해하기 쉽고 습득도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이 관계화 될 수 있는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단지 주어와 직접 목적어만이 관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통사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서 쉽게 이해되고 먼저 습득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엄성운(2003)은 한국어와 영어를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선행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신영락 옮김.

5) 조수근(2003)에서는 일반적으로 머리명사를 수식하는 내포문을 관계절이라 하고 이러한 관계절 안에는 머리명사와 일치하는 하나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절이 존재하고 관계절 뒤에 ‘것’이라는 불완전 명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형태를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라고 하였다.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는 절을 ‘내포 머리어 관계절’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계절을 외포 관계절로 간주했을 때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관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서 외포문에서는 간접목적어 관계화와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화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예) [도둑이 보석을 훔친] 것이 가짜이다.

6)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언어들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Covert(1976, 1977)와 Keenam(1978)의 실험결과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집단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단일 언어 집단의 한국어에서의 관계절 문장 이해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관계절 문장 이해시 가운데 내포문보다는 왼쪽 분지문에서 수행력이 높았다고 한다⁷⁾. 또한 이중 언어 집단의 한국어 관계절 문장에서는 가운데 내포문보다는 왼쪽 분지문에서 수행력이 높았으나 영어 관계절 문장에서는 가운데 내포문보다 오른쪽 분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로는 William 외(2005)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계 한국어 학습자와 비 한국계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이해의 정도와 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두 실험 집단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실험 집단 모두 목적격보다는 주격 관계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3a)는 주어가 관계화 되어 나타난 주격이었으며 (3b)는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되어 나타난다. 두 문장 모두 머리명사인 ‘여자’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 (3) a.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b.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Willam 외(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절 이해 정도와 사용 양상에 있어서 제1언어습득이나 제2언어습득에 차이가 없이 두 집단 모두 직접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직접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쉽게 이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Patricia(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영어의 관계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7) 엄성윤(2003)의 실험에서 사용된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절 문장의 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a. 오리를 넘어뜨린 토끼가 다람쥐를 쫓아갔다. (왼쪽 분지문)
b. 토끼가 넘어뜨린 오리가 다람쥐를 쫓아갔다. (왼쪽 분지문)
c. 다람쥐가 토끼를 넘어뜨린 오리를 쫓아갔다. (가운데 내포문)
d. 토끼를 오리가 넘어뜨린 다람쥐가 쫓아갔다. (가운데 내포문)
e. 다람쥐를 넘어뜨린 토끼를 오리가 쫓아갔다. (왼쪽 분지문)
f. The cat that bit dog chased the rat. (가운데 내포문)
g. The cat that dog bit chased the rat. (가운데 내포문)
h. The cat bit the dog that chased the rat. (오른쪽 분지문)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목적격 관계절보다도 주격 관계절을 먼저 습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심리언어학 분야에서의 관계절 습득양상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계절 습득 양상이 영어와는 어순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귀옥 외(2005)을 들 수 있다. 이귀옥 외(2005)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이중 언어 아동들의 관계절 발달이 중국어라는 단일 언어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주격 관계절이 목적격 관계절보다 더 일찍 습득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주어와 목적어의 비대칭성이 영어와는 어순이 다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관계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방안 제시와 함께 관형형 어미의 사용 양상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은기(2005)와 이진경(2006)을 들 수 있다. 이은기(2005)는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형절⁸⁾ 시제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관형절 시제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관형절 시제 사용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기(2005)는 관형절 시제를 '상'이나 '서법' 등에 기본을 두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특히, 일반적으로 관형절 시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잡한 입력으로 인해서 이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상'에 따른 지도 방안은 제시가 되어 있으나 '서법'에 대한 지도 방안이나 설명은 부족하였다. 그 밖에 한국어

8) 관형절에는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절과 동격절이 있다. 관계절은 꾸밈을 받는 명사, 즉, 머리명사가 관계절에서 생략된 것으로 예를 들면 '어제 산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에서 '어제 (자전거를) 산'은 머리명사 '자전거'를 꾸며주는 관계절에 해당되며 머리명사 '자전거'는 관계절에서 타동사 '사다'의 목적어로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동격절은 의존명사나 명사화소로 꾸밈은 절로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나 명사가 동격절에 생략되어 있지 않으며 동격을 의미한다. 즉 '어제 자전거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에서처럼 관형절 '어제 자전거를 샀다'의 문장에 명사 '소식'이 생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학습자들의 관형형 어미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로는 이진경(2006)을 들 수 있다. 이진경(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환경의 유형별로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관계절 사용 양상의 분류 기준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환경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이진경(2006)에서의 분류 기준을 일부 적용시키기로 한다. 이진경(2006)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으)ㄴ', '-는', '-(으)ㄹ', '-던' 4개로 분류하였고 오류의 유형은 누락, 환언, 형태, 대치, 첨가, 기타오류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던'에서의 오류가 가장 높았으며 오류 유형별로는 형태, 누락, 첨가, 기타, 환언오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용 환경의 유형별로는 관계절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용구에서의 사용, 동격관형절에서의 사용, 명사화소, 관계관형절, 관용구, 고정된 표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권별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에서는 각 요인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급에서 오류율이 높았으며 언어권별로는 일본어권 학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관계절에서의 오류는 단순한 시제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 동사의 상적 특성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 '-던' 사용의 미숙으로 인한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관형형 어미의 오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누락오류⁹⁾율은 초급과 중국어권 학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실험 참여자들이 초급에서 중급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임을 고려해볼 때 관계절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오류에 있어서는 누락오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알아본 결과 고급으로 갈수록 사용률은 높아지고 오류율은 줄어들었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단문에서 복문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은기(2005)와 이진경(2006)은 관계절의 유형이나 사용 양상 등과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관계절 사용의 오류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관형형 어미의 습득 양상을 실험한

9) 누락오류는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를 누락하는 비문법적인 생략을 의미한다. (이진경, 2006)

정대현(2009)이 있다. 정대현(2009)에서는 문법적 특징과 사용양상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관형형 어미를 활용한 교수법에서의 입력강화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단'이 '-(으)ㄴ', '-는', '-(으)ㄹ'보다 오류수정 과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한다. '-단'의 경우에는 의미구조가 복잡하여 의사소통 가치가 매우 높으면서도 습득이 거의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대현(2009)에서도 기존의 논문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주격 관계절의 습득이 직접목적격 관계절의 습득보다 초기에 일어나고 선호도도 높다는 것을 밝혔다.

William(2006)과 Patricia(2002)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목적격보다는 주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사용 빈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논문들에서 밝혀진 주격 관계절의 습득이 목적격 관계절의 습득보다 초기에 일어났던데다 주격 관계절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초급에서 중급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에서도 주격관계절의 사용이 목적격관계절의 사용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관계절에서 주격과 목적격 사용 양상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한국어의 관계절

단문이 둘 이상 모여 더 큰 문장으로 확대된 것을 복문이라고 하는데 복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한 문장이 다른 문장들과 나란히 연결되는 '문장의 연결' 방식이고 다음으로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는 '문장의 안김' 방식이다.(국립국어원, 2005) 영어에서는 전자의 경우 접속사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다음으로 '문장의 안김'이란 한 문장이 일정한 문장성분의 구실을 하면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05)

관계절이란 공통되는 한 단어가 나타나는 두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을 말한다. 영어의 관계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관계절에는 관계대명사 없이 시제와 상에 따라 어미를 붙여서 관계절을 만든다. (4a)의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는 절을 명사구로 바꾸어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된다. 주어 자리에 있던 ‘사람이’는 머리명사가 되며, ‘물에 빠졌다’라는 서술어는 자동사의 ‘완료’ 의미의 관형형 어미 ‘-ㄴ/은’으로 연결되어 ‘물에 빠진’으로 ‘사람’을 꾸며준다.

- (4) a. 사람이 물에 빠졌다.
b.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

관형형 어미로 변형된 관계절은 머리명사 앞으로 자리 이동을 하여 머리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한국어에 나타나는 관계절의 특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첫째, 한국어의 관계절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등이 없다. 둘째, 한국어의 관계절은 머리명사 앞에 위치한다. 수식받는 머리명사가 관계절 뒤에 오는 특징이 있다.¹⁰⁾

기존 연구에서는 관형형 어미¹¹⁾를 사용하여 바꾸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형절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변형생성문법에 의하면 이는 낱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변형시킨다고 하여 관계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서정수, 2006). 여기서 관계절이란 머리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

10) 서정수(2006)는 우리말의 관계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말의 관계절은 머리 명사 앞에 놓인다.

우리말의 관계절 구조에서는 머리 명사와 관계절 사이에 딱 수식어가 길게 개입된다.

우리말의 관계화소¹⁾는 자립성이 없는 문법 형태이다.

관계화소가 관계절의 시제와 상에 따라 다른 형태가 선택된다.

우리말의 관계절에는 부사절이 포함된다.

우리말의 관계절에는 머리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나 제귀 대명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서정수, 2006)

11) 서정수(2006)에서는 관형화소로 표현하며 이런 관계화소는 관계절이 지닌 시제/상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머리 명사와 이어준다고 하였으며 ‘는’, ‘-ㄴ/은’, ‘-ㄴ/을’을 포함시켰지만 ‘던’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던/었던’의 형태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형사형 어미’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는 절을 말한다. 관계절 안에서 생략된 명사가 관계절의 머리명사가 되며 영어의 선행사¹²⁾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남기심(2002)은 관형절을 관계관형절, 즉 관계절과 동격관형절¹³⁾로 분류시켰으며, 관계절이 뒤따라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격관형절과 같지만 구문론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5a)의 '법정 스님이 쓴'은 머리 명사인 '책'을 한정하고 있으며 (5b)의 구조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5a)의 기저 구조를 나타내는 (5b)을 보면 머리 명사 '책'은 내포절에서의 목적어가 자리 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관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c)에서는 머리 명사 '사실이' 관형절인 '법정 스님이 자선을 베푼'의 내포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며 관형절의 내용이 머리 명사와 동격을 이루어서 동격관형절로 분류시킬 수 있다.

- (5) a. 법정 스님이 쓴 책이 절판되었다.
 b. [법정 스님이 (___을/를) 쓴] 책이 절판되었다.
 c. 법정 스님이 자선을 베푼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어의 관계절 이해에 있어서 관계절 첨가 위치, 격 표지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심리언어학적 연구에 의하면 관계절의 첨가 위치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이런 첨가 위치 변인에 따른 문장 이해에서 한국어 관계절의 경우 가운데 보다 왼쪽에 첨가되는 경우 즉, 가운데 내포문보다 왼쪽 분지문에서, 영어 관계절의 경우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첨가되는 경우 즉, 가운데 내포문보다 오른쪽 분지문에서 더 높

12) 영어에서는 선행사 또는 동격의 명사에 해당되나 한국어에서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머리 명사로 불리어진다. 남기심(2001)에서도 관계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이므로 관계명사라고 해도 좋으나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머리명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13) 남기심(2001)에서는 동격관형절이라고 하였으며 서정수(2006)에서는 관형화 보속절이라고 하였다. 서정수(2006)에서는 내포절을 안고 있는 복합문은 관계절 포유문과 관형화 보속절 포유문이라고 하였으며 그 외에 인용절 포유문은 관형절 내포절인 경우로 있지만 동사구 내포절인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절의 관형형 어미뿐만 아니라 품사와 사용빈도 등을 살펴볼 것이므로 관계절이라고 명칭한다.

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 왼쪽 분지문이 가운데 내포문보다 더 쉽게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박주혜, 2009) (6a)는 관계절이 가운데 내포문으로 나타나고 (6b)는 왼쪽 분지문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6) a. 이 옷은 결혼식 날 입을 옷이에요.
b. 결혼식 날 입을 옷을 찾으러 왔어요.

관계절의 머리 명사는 기저 구조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즉 기저 구조의 각 성분을 머리로 하는 관계화 변형을 할 수가 있다.¹⁴⁾ 예를 들어서 (7a)에서는 머리명사 ‘사람’이 관계절에서 목적어로 생략된 경우이며 (7b)에서는 머리명사가 관계절에서는 주어의 생략된 형태이다. (7c)에서의 ‘식당’이 관계절에서는 처소격의 생략된 형태이며 전체 문장에서 주절을 이룬다. (7d)에서의 머리명사 ‘식당’은 관계절에서 주어의 생략된 형태가 되며 주절에서는 장소의 부사절을 이룬다.

- (7) a.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b. 나를 사랑한 사람이 떠났다.
c. 자주 가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d. 어제 문을 연 식당에 가 봅시다.

한국어의 관계절은 관계사 없이 관형형 어미를 시제와 상에 따라 붙여서 머리명사 왼쪽에서 머리명사를 꾸며준다. 이에 따라 관형형 어미 사용은 한국어 관계절 사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형형 어미는 동사의 시제에 따라 ‘-ㄴ/은’, ‘-는’, ‘-르/을’, ‘-던/었던’의 형태로 쓰인다. 관형형 어미는 동사의 시제뿐 아니라 품사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취하는데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은 형용사와 ‘-이다’에 쓰이면 현재를 나타낸다. ‘-는’은 동사에서 쓰이며, 현재 사실이나 진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형용사 중에서도 ‘재미있다’와 ‘맛있다’와 같이 ‘있다’와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는’이 쓰인다. ‘-ㄴ/은’은 동사에 쓰이면 과거의 일이나 과거에 완결된 일의 지속 상태를 나타

14) 서정수(2006)에서 일부 인용됨.

내며, 형용사에 쓰이면 상태를 나타낸다. ‘-르/을’은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겠’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나타내기 보다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던’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된 일을 나타내면서 회상 보고의 기능을 갖는다. 한편, ‘-었던’은 완결의 의미나 과거의 상태를 의미한다. ‘-ㄴ/은’, ‘-는’, ‘-르/을’, ‘-던/었던’의 관형형 어미를 붙여 뒤에 오는 머리명사를 수식¹⁵⁾하는 관계절은 관형형 어미 사용에 대한 형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왼쪽 분지 언어라는 첨가위치에 따른 이해 측면과 격표지와 같은 의미관계를 이해하고 격에 따른 조사 선택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절의 유형이다. 이러한 관계절의 습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의 첨가 위치, 문장 성분과 격표지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의 양상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4. 관계절 사용 양상

4.1 한국어 교재의 관계절 사용 양상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절이 한국어 문법교육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형형 어미에 관한 문법 제시 부분에서 관계절 사용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형형 어미 문법 설명에 나타난 문장들 대부분이 관계절이었으며 관형절의 또 다른 범주인 동격관형절은 관계절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이진경(2006)의 연구에서도 관계절을 포함한 동격절, 관용구 등 관형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15) ‘-ㄴ/은’, ‘-는’, ‘-르/을’, ‘-던/었던’의 관형형 어미를 붙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로는 관계절 이외에도 동격관형절을 들 수 있다. 동격관형절은 문장의 모든 성분을 갖추고 있으나 관계절은 머리명사가 관계절 기저구조에서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구분된다.

결과 관계절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사용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형형 어미 사용에서의 오류율로는 오히려 동격관형절이 높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형형 어미 사용에 제시된 문장의 대부분이 관계절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불완전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어진 한국어 교재로는 경희대(2006), 서울대(2000), 연세대(2008)의 한국어 교재들이다. 각각의 한국어 교재 내용 중에서 관형형 어미에 관한 문법적 설명에 나타난 관계절과 관형형 어미의 문법 설명이 있는 단원의 본문 내용에서의 관계절을 합하여 총 53개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단, 문법 연습 문제에서 제시된 관계절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문장 내에서 관계절의 첨가 위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총 53어절의 관계절 중에서 왼쪽 분지문 관계절이 43어절로 81.1%이며 가운데 내포문이 10어절로 18.9%로 나타났다.¹⁶⁾ 문장의 왼쪽보다는 가운데나 오른쪽에 관계절이 오는 영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왼쪽 분지문 관계절의 사용 양상이 높은 것은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주어의 생략이 가능한 한국어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문장에서의 관계절 첨가 위치

관계절 위치	빈도수(어절)	비율(%)
왼쪽 분지문	43	81.1
가운데 내포문	10	18.9
총 합계	53	100

(8a~d)는 머리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모두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8a)는 관계절이 머리명사와 함께 주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8b)는 관계절이 머리명사와 함께 전체 문장의 간접목적절을 이끌고 있다.

16)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엄성운(2003)은 관계절 문장 이해서 가운데 내포문보다는 왼쪽 분지문에서 수행력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영어 관계절 문장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가진다.

(8c)는 관계절의 머리명사와 함께 전체 문장에서 직접목적절의 역할을 한다. (8d)에서처럼 머리 명사와 함께 보어절인 관계절이 문장 머리에 오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주어의 생략이 가능한 한국어의 특성에 의해 목적절, 보어절, 간접목적절일지라도 문장의 왼쪽에 위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8e)는 관계절이 문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이 의자는’이 생략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관계절 ‘왕이 앉던’이 ‘의자’를 수식하여 관계절이 머리명사와 함께 보어절을 형성하고 있다.

- (8) a.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은 빌리 씨입니다.
 b.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c. 고향 친구에게 쓴 편지를 부치려고 합니다.
 d.. 귀엽고 노래를 잘 하는 친구예요.
 e. 이 의자는 왕이 앉던 의자예요.

분석 자료로 사용된 세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¹⁷⁾의 문장에서의 구성 역할을 보면 <표 2>와 같다. 주절을 형성하는 관계절은 25어절로 전체의 47.2%였으며 이는 전체 관계절 사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직접목적절은 15어절로 28.3%였으며 간접목적절은 4어절로 7.5%였다. 그 외에 보어절이 9어절로 17.0%였다.

<표 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의 구성 역할

관계절의 구성 역할	빈도수(어절)	비율(%)
주절	25	47.2
직접목적절	15	28.3
간접목적절	4	7.5
보어절	9	17.0
총 합계	53	100

17) 여기서 관계절이란 ‘머리명사를 포함한 관계절’이라는 표현으로 편의상 생략한 것이다.

주절을 형성하는 관계절은 총 25어절이었으며 전체의 47.2%에 해당된다. (9a)는 관계절이 전체 문장의 주절이 된다. 한편, 관계절에 생략되어 있는 머리명사는 관계절 안에서는 주격에 해당된다. (9b)에서는 관계절이 머리명사와 함께 주절을 이루는 것은 같으나 머리명사 ‘동네’가 관계절에서는 처소격 부사에 해당이 된다.

- (9) a.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은 빌리 씨입니다.
b.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쓰인 세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된 직접목적절의 관계절은 15어절로 전체의 28.3%에 해당되며 주절과 직접목적절을 합하면 75.5%에 이른다. (10a)에서의 관계절은 머리명사 ‘김 선생님’을 수식하고 있으며 머리명사를 포함한 관계절은 전체의 목적절을 형성한다. 한편, 관계절에서의 생략된 머리명사는 주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0b)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 (10) a.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b. 어제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다음으로 보어절의 관계절은 9어절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7.0%에 해당된다. (11a)에서 관계절은 머리명사 ‘옷’을 수식하며 머리명사를 포함한 관계절은 보어절을 이룬다. 관계절에서의 생략된 머리명사는 목적격이다. (11b)에서도 역시 머리명사를 포함한 관계절이 보어절인 점에서는 같지만 관계절에서의 생략된 머리명사 ‘꽃’은 타동사 ‘좋아하다’의 목적어가 된다.

- (11) a. 이 옷은 결혼식 날 입을 옷이에요.
b. 친구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드물게 간접목적절로도 나타나는데 모두 3어절로 이는 전체에 나타난 관계절의 7.5%에 해당되며 예 (12a)와 같다. (12a)에서는 ‘한국에 사는’이

현재의 사실을 의미하므로 관형형 어미 ‘는’을 첨가하여 머리명사 ‘외국인들’을 수식하고 있다. 관계절은 머리명사와 함께 전체 문장의 간접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머리명사에 여격조사를 또다시 첨가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머리명사 ‘외국인’은 관계절의 기저구조에서 보면 주격이 된다. (12a)에서는 한 문장에 두 어절의 관계절이 중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주어와 생략되고 보어절로 문장이 끝난 형태이다. 즉, ‘외국인’이라는 머리명사 이외에도 ‘축제’라는 머리명사가 더 있으며, ‘축제’를 포함한 관계절은 보어절이 된다. 관형형 어미를 처음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이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복잡한 문장구조로 보인다.

(12) a.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계절의 구성 역할을 정리해 보면 주절의 관계절이 대다수였지만 간접목적절, 보어절 등 비교적 다양한 문장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53어절 중에서 기저구조에 생략된 머리명사의 관계절의 격을 살펴보면, 주격이 26어절로 49.1%였다. 목적격은 직접목적격과 간접목적격을 합쳐서 20어절로 37.7%로 주격과 목적격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보어나 처소격으로 나타난 관계절은 7어절로 13.2%였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의 기저구조에서의 격표지

기저구조에서의 격	빈도수(어절)	비율(%)
주격	26	49.1
목적격	20	37.7
기타	7	13.2
총 합계	53	100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에서도 한국어의 특성상 왼쪽 분지문 관계절

사용이 많았다. 관계절로 시작하는 문장 사용이 높은 것에 비해서 관계절이 주절을 형성하는 비율은 47.2%였다. 이는 주어 생략이 가능하고 주체어 중심의 한국어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절 내에서의 머리명사가 생략된 위치의 격으로는 주격이 목적격보다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습 초기에는 주격 선호가 높게 나타나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주격과 목적격의 이해 발달이나 사용에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은 한국인이 구사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주격 사용과 목적격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 양상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문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51명이며 모두 중국인 학습자들이었다. TOPIK 유형 시험에서 같은 점수대의 학생들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3급 정도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었다.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습자들로 한국에서의 학습이나 거주기간이 짧은 중국어권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어의 기초과정을 마치고 중급으로 진급하려는 중국인 학습자들로 관형형 어미 사용에 대한 학습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짧은 한국 내에 있는 대학교 입학 예정자들이다. 이 진경(2006)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사용률은 고급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오류율은 줄어들었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단문에서 복문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아직까지 고급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 보겠다.

연구에 참여한 실험자들은 40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선택하여 한국어 작문을 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51명의 답안지 중에서 무효로 처리된 3명의 작문을 제외한 48명의 작문 답안지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8명의 작문 중에서 43명의 작문에서 관계절 사용이 나타났다으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전체 90%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작문에서 관계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한국어 학습자 48명의 작문 분석 결과, 43명의 작문에서 관계절은 124어절¹⁸⁾이 나타났으며 동격 관형절은 12어절에 불과했다. 이 외에 불완전 명사를 갖는 보문절 또는 명사화소도 관계절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사용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분석 자료는 두 개의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작문 시험을 본 것으로 한국어에 대한 내재된 지식의 정도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4.2.1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에서의 문장 구성

학습자 작문에서 사용된 124어절의 관계절 가운데 왼쪽 분지문 관계절이 103어절로 83.2%이며, 가운데 내포문이 21어절로 16.9%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관계절 문장에서의 왼쪽 분지문이 81.1%로 나타난 교재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 4>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문장에서의 관계절 첨가 위치

관계절 위치	빈도수(어절)	비율(%)
왼쪽 분지문	103	83.1
가운데 내포문	21	16.9
총 합계	124	100

(13a)와 (13b)는 한 학습자의 글에서 발췌된 관계절 사용 문장으로 수식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a)는 인용절이 나타났으며 관계절이 ‘위험한 사람을 직접 보아도’와 같은 부사절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사절이 관계절에서 어두에 오고 있는 예이다. (13b)에서는 관계절 ‘위험에 처한 사람이

18) 작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작문 주제로 주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시하는'이 머리명사 '사람들'을 수식하며 문장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왼쪽 분지문을 이룬다. 또한 (13b)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마 도와 주어야 한다는'이 명사 '교육'과 동격을 이루는 동격 관형절을 이루고 있다.

- (13) a. 위험한 사람을 직접 보아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b.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마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의 문장에서의 구성 역할을 살펴보면 주절을 형성하는 관계절은 81어절로 전체의 65.3%였으며 이는 전체 관계절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직접목적절은 27어절로 21.8%였으며 간접목적절은 3어절로 4.8%였다. 보어절은 6어절로 4.8%였으며 부사절은 7어절로 5.7%였다. 즉 한국어 교재에서보다는 학습자 작문의 관계절에서 주절을 이루는 관계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의 구성 역할

관계절의 구성 역할	빈도수(어절)	비율(%)
주절	81	65.3
직접목적절	27	21.8
간접목적절	3	2.4
보어절	6	4.8
부사절	7	5.7
총 합계	124	100

다음으로 머리 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절 기저 구조의 성분에 따른 관계화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주어가 관계화 된 관계절, 즉 주격 관계절은 96어절로 77.4%를 차지했으며 목적어가 관계화 된 관계절은 19어절로 15.3%였다. 그 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화 된 관계절, 즉 기저 구조

(underlying structure)의 시간어와 처소어가 머리명사로 나타난 관계절이 9 어절로 7.3%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과 같다.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의 다양한 격의 관계사가 사용되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서는 주어가 관계화 된 관계절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또한 주격 관계절이 46.6%이고 목적격 관계절이 39.6%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교재의 관계절 예문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표 5>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의 기저구조에서의 격 표지

기저구조에서의 격	빈도수(어절)	비율(%)
주격	96	77.4
목적격	19	15.3
기타	9	7.3
총 합계	124	100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을 살펴 보면, 왼쪽 분지문 관계절 사용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절이 주절을 이루는 관계절은 65.3%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47.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격 관계절이 77.4%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49.1%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학습 초기에는 직접 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직접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쉽게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 초기에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목적격 관계절 보다는 주격 관계절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2 관계절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사용 양상

실험에 사용된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123절 중에서의 오류 유형을 보았을 때 크게 관형형 어미의 오류와 조사 사용의 오류가 보여 졌다. 조사 사용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격조사 ‘이/가’와 주제를 나타내

는 ‘은/는’의 대치 오류 또는 ‘을/를’과의 대치 오류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도구격 조사 등의 오류가 있었다. 조사 사용의 오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오류로서 관계절 구성에 대한 오류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여기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사용의 오류 양상은 제외하기로 한다. 관계절 사용에 있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오류로는 시제와 상에 따른 관형형 어미변화일 것이다. 시제에 따른 변화 없이 ‘的’을 사용하여 관계절과 머리 명사를 연결시키는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시제와 상에 따라 관형형 어미를 붙이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학습 초기에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계절 구성의 필수 요소인 관형형 어미의 사용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48명의 작문 분석 결과, 관계절은 총 123어절이 나타났다. 이 중 관형형 어미 사용 오류는 21 어절로 나타나 관계절 사용 대비 17.1%의 오류율을 보였다. 관계절 사용에서의 관형형 어미 사용 오류율은 <표 4>와 같다.

〈표 4〉 관계절 사용에서의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율

관계절 사용 어절수	관형형 어미 사용 오류(어절)	오류율
123	21	17.1%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에 대한 분석으로 ‘-하다’ 형태의 형용사에 나타난 오류, ‘-ㄴ/은’의 ‘는’ 대치오류, ‘는’의 ‘-ㄴ/은’ 대치오류, ‘는’의 ‘-르/을’ 대치오류, ‘-ㄴ/은’의 ‘-르/을’ 대치오류, ‘-있던’의 ‘-던’ 오류와 누락 오류 등을 기준으로 형태적 오류 양상을 살펴보겠다.

- ‘-하다’ 형태의 형용사의 품사 오류

‘-하다’ 형태의 형용사의 관형형 어미 사용에서의 오류는 전체 오류 중에서 28.5%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14a~f)에 밑줄 친 관형형 어미는 모두 동사

가 아니라 '-하다' 형태의 형용사이므로 시제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받침이 없으므로 '-하다'를 '-한'의 형태로 머리명사 앞에 놓여 져야 한다. (14a~c)은 같은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난 오류였으며 전체 글에서 3어절의 관계절을 사용한 이 학습자의 작문에서 3어절 모두 품사 오류를 보였다. 즉, '-하다'형의 형용사를 동사로 오인하여 일어난 오류로 판단된다.

- (14) a. 수영장등에 위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b. 갑자기 위험하는 사람은 보면 여러분은 도와줄겁니까?
 c. 마음이 무렵지 않고 편하는 마음은 살 수 있습니다.
 d. 우리 자기는 위험하는 지식이 많이 알고 있으면 위험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합니다.
 e. 왜 이런 간단하는 행위는 법이 필요하십니까?
 f. 우리 자기는 위험하는 지식이 많이 알고 있으면 위험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합니다.

• '-ㄴ/은'의 '는' 대치오류

'-는'은 동사에 쓰이며 현재 사실이나 진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형용사 중에서 '있다'와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는'이 사용된다. 다음에 나타난 (15a)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은'을 사용해야 하는데 '-는'으로 대치된 오류 형태이다. 자동사인 경우 현재를 의미하는 관형형 '-는'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며, 과거형 '-ㄴ/은'은 완료형을 뜻하는데 (15b)와 (15c)에서는 자동사 '빠지다'를 현재형으로 여겨서 진행의 의미로 잘못 사용된 오류의 예이다. (15b~d)의 예문에서는 관계절의 서술어들이 의미상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은 문장의 서술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 오인한 오류로 예측된다.

- (15) a. 음악회 등 관심 많은 학생도 많다.
 b. 물에 빠지는 사람이 너를 알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c. 오늘은 물에 빠치는 사람은 여학생입니다.
 d. 오늘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관형절의 시제는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16a)와 (16b)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둘 다 모두 맞는 문장으로 영어에서와는 달리 주절의 동사의 시제에 따른 제약이 없다.

- (16) a.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
b.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동생이다.

• '는'의 '-ㄴ/은' 대치오류

'-ㄴ/은'은 동사에 쓰이면 과거의 일이나 과거에 완결된 일의 지속 상태를 나타내며 형용사에 쓰이면 상태를 나타낸다. 분석 자료에 나타난 관계절의 오류 형태를 살펴보면 (17a)에서는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을 의미할 때는 관형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데 동사의 과거를 의미하는 '-ㄴ/은'으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전체 문장이 과거형 어미로 종결되어 과거로 오인하여 '-는' 대신에 '-ㄴ/은'으로 대치된 오류로 볼 수 있다. (17b~f)에서는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므로 관형형 '-는'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ㄴ/은'으로 대치되었다. '-는'의 '-ㄴ/은'으로의 대치오류는 '있다/없다' 동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 (17) a. 노력한 배우를 나왔습니다.
b. 우리 살 사회는 인정 없는 사회 되잖습니까.
c. 자기 능력이 할 수 없는 일도 도와 주는 사람
d. 학생이랑 연극 꿈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 '는'의 '-ㄹ/을' 대치오류

'-ㄹ/을'은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추측을 의미한다. (18a)에서는 현재의 사실을 의미하므로 관형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데 미래를 의미하는 '-ㄹ/을'로 대치된 오류이다. (18b)에서는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을 의미할 때는 관형형 어미 '-는'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장이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미래로 오인하여 '-ㄹ/을'로 대치되었다.

- (18) a. 우리 살 사회는 인정 없는 사회 되잖습니까.

b. 아이가 어떤 관람에 관심 많아서 특장 되고 나중에 그런 잘 할 수 있을 사람 되는 것

• '-ㄴ/은'의 '-르/을' 대치오류

(19a)와 (19b)에서는 행위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과거형 관형형 어미 '-ㄴ/은'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르/을'이 사용되었다. 두 문장 모두 같은 학생에서 나온 오류로 전체 51명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의 작문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적인 학습 부족으로 예측된다.

(19) a. 영화나 음악회를 만들자가 큰돈을 벌기 위해서

b. 영화나 음악회를 만들자가 사람위해서 적당한 관람료가 만들기 바란다.

• '-었던'의 '-던' 오류

'-던'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된 일을 나타내면서 회상 보고의 기능을 갖는 반면에 과거형의 '-었-'을 첨가한 '-었던'은 '완결'의 의미나 과거의 상태를 의미한다. (20a)에서는 '완료', '결과'의 과거의 '-었던'을 써야 하는 대신에 과거 회상의 '-던'으로 대치한 것으로 보아 '-었던'과 '-던'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작문에서 '-던'이나 '-었던'의 사용이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20) a. 같이 와던 친구들도 학생입니다.

그 외의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를 살펴보면 (21a)는 관형형 어미의 시제 오류로 한 형태로 '-ㄴ/은'이 '-는'으로 대치되었다. 이 예문에서는 관형형 어미의 오류에 앞서서 타동사 '모으다'가 피동형 '모이다'로 잘못 사용되어졌다. 이 예문을 전체적으로 추정하여 수정해보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무 쉽게 썼더라고요.'가 될 것이다. 즉, 관형형 어미의 오류뿐 아니라 대부분의 어절에서 조사 또는 어미의 오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휘와 표현에 비해 문법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 (21b)에서는 형용사의 관형형

‘넓은’을 사용하려고 한 듯하다. 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학습은 하였으나 철자를 알지 못해서 발생한 발음에 따라 쓴 철자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1) a. 부모님은 고생하게 모이는 돈이 너무 쉽게 들었더라고요
b. 발이 놀분 사람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에 있어서의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하다’ 형태인 형용사의 관형형 오류가 2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적 구분으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시제에 따라 관형형 어미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품사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관형형 어미를 제시할 때 동사의 시제에 따라 관형형 어미가 달라짐을 명시함과 더불어 ‘-하다’ 형태의 형용사의 품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43명의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에서의 관형형 어미의 오류 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형태적 오류의 유형 및 오류율

형태적 오류의 유형	빈도수(개)	오류율(%)
(1)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의 품사오류	6	28.5
(2) '-ㄴ/은'의 '는' 대치오류	4	19.1
(3) '는'의 '-ㄴ/은' 대치오류	4	19.1
(4) '는'의 '-ㄹ/을' 대치오류	2	9.5
(5) '-ㄴ/은'의 '-ㄹ/을' 대치오류	2	9.5
(6) '-있단'의 '-단' 오류	1	4.8
(7) 기타	2	9.5
총 합계	21	100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 사용 양상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에서 왼쪽 분지

문이 전자에서는 81.5%이며 후자에서는 83.1%로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나 관계절의 구성 역할과 격 표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은 수식받는 머리명사와 함께 문장에서 주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47.2%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이 주절을 형성하는 경우는 65.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계절을 구성할 때 주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계절의 격 표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계절은 주격이 49.1%이고 목적격이 37.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의 관계절에서는 주격이 77.4%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주격 사용이 49.1%인 것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 참여자가 초급에서 중급에 이르는 학습자로 관계절 습득 초기의 학습자임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관계절 습득 양상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목적격보다는 주격에 이해도가 높고 주격 관계절의 습득이 목적격 관계절의 습득보다 초기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은 무효로 처리된 3명을 제외한 48명의 작문 중에서 43명의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관계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은 123어절로 이 중 21어절인 17.1%의 관형형 어미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 중 '-하다' 형태인 형용사의 관형형 오류가 2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오류율은 관계절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봉착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의 관계절 사용 양상을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은 무효로 처리된 3명을 제외한 48명의 작문 중에서 43명의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관계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관형형 어미를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절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관형형 어미 사용에 관한 문법에 제시된 한국어 교재들의 예문들을 살펴보았다. 관형형 어미에 관한 문법 설명에서 제시된 문장들의 대부분이 관계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53어절의 관계절 중에서 왼쪽 분지문이 43어절로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10어절인 18.9%만이 문장의 가운데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왼쪽 분지문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오고 주어의 생략이 가능한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의 위치도 왼쪽 분지문이 83.1%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머리명사를 포함하여 주절의 역할을 하는 관계절이 47.2%로 많은 편이긴 하였지만 목적절과 보어절 등 비교적 다양한 역할의 관계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관계절이 주절을 형성하는 경우는 65.3%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계절을 구성할 때 주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계절 53어절 중에서 기저구조에 생략된 머리명사의 관계절의 격 표지를 살펴보면, 주격이 49.1%였으며, 목적격은 직접목적격과 간접목적격을 합쳐서 37.7%로 주격과 목적격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없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의 관계절에서는 주격이 77.4%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주격 사용이 49.1%인 것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학습 초기에는 직접 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직접목적격 관계절보다 주격 관계절을 더 쉽게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 초기에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목적격 관계절 보다는 주격 관계절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분석 결과 총 123어절의 관계절이 43명의 작문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21어절인 17.1%의 관형형 어미 사용의 오류가 나타났다. 관형형 어미의 유형 중에서는 ‘-하다’ 형태인 형용사의 관형형 오류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하다’ 형태의 형용사를 동사와 혼동하여 일어난 품사 오류로 보여진다. 관계절 사용에서 이러한 높은 오류율을 야기시키는 관형형 어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높은 오류율을 보인 ‘-하다’로 끝나는 형용의 관형형 어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으로 관계절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록 관형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의 형태적 오류는 나타났지만 관계절에 관한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권 등 관계절의 쓰임과 문법적 특징이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게도 같은 실험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들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면 한국어 수준에 따른 관계절 사용 양상과 함께 관계절 습득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대상자들이 중국인 학습자들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나라별 또는 언어권별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모국어의 간섭에 따른 다양한 관계절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홍모, 「한국어 관계절 문장의 인지적 처리 기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영주, 「한국어와 일본어의 복합명사구 산출에서 발견되는 언어습득상의 실수와 그 이론적 의의」, 대우학술총서, 1997.
 김영진, 「한국어 관계절 문장의 이해 과정과 구조」, 인지과학 6-2, 1995.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박주혜, 「경도지적장애아동의 관계절 내포문 이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정수, 『국어문법』, 한세본, 2006.
 신규석, 『한국어 문법교육의 방향』, 한국어문법교육, 1999.
 이귀옥 외,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 중국어 관계절 발달」, 이중언어학회 29호, 2005.
 이은기,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수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엄성윤,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관계절 문장 이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진경,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대현, 「입력강화를 통한 한국어 문법 형태 습득 및 본문 이해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수근, 「한국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과 습득 연구」, 인지과학 14-2, 2003.
- 찰스 N. 리 외,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96.
- 한청, 「중국인 학습자의 내포문 오류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 문진미디어, 200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2』, 문진미디어, 200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3』, 문진미디어, 2000.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Patricia M.. Clancy, 「한국어의 주격, 목적격 조사 습득」, 대우학술총서, 2008.
- William O'Grady 외,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by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of korean as a L2*, 한국어교육 12-2, 2005.

❖ ABSTRACT

A Study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Used by Korean Learners

Su Hyun Jo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using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text books for the foreign students and from the Chinese students' Korean compositions. They are th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t the early intermediated stage.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m, the followings were found i)the majority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consists of left-branching sentences. ii)The number of the subject relative clauses was higher than object ones in both of them. Especially in the aspect of using relative clauses, subject ones were used even more frequently than objective ones. This result is corresponded to the previous thesis, "the subject relative clauses was acquired earlier than object ones". iii)The relative clauses that those with a head noun function as subject in the main sentence showed in higher proportion in comparison of those as object. That is, this study showed that subjects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objects in the relative clauses used in their compositions. Fi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errors of adnominal ending usage occurring in their compositions. More errors occurred when adjective form ended with '*-hada*' are changed into adnominal ending one.

Key Words

관계절, 머리명사, 관형형 어미, 왼쪽 분지문, 가운데 내포문

relative clauses, head noun, adnominal endings, left-branching sentence, center embedded sentence

논문접수일: 2010. 2. 26.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